

▶ 달러/원 주간 전망

• 미·중 물가지표, 금통위 등 굵직한 재료에도 박스권 유효할 듯

서울, 7월10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등 굵직한 재료를 소화하면서도 방향성보다는 최근의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0-1,320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7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금주 미국 6월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비 5월 4.0%에서 3.1%로 둔화하겠지만, 전월비는 0.1%에서 0.3%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되며 미국 6월 CPI 상승률은 3%대로 낮아지겠지만, 근원 물가 추이를 확인해야 하는 데다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인 2%는 크게 웃도는 만큼 7월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은 유지될 확률이 높아 이번 미국 물가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반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한편, 중국 역시 물가 지표를 비롯해 수출입 지표를 발표한다. 중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비 5.0% 하락해 전달(-4.6%)보다 하락세가 확대되고, 수출입 지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위안화 반응이 주목된다.

다만, 최근 추세적 위안 약세에 대한 전환 기대는 낮지만, 최근 당국 개입 경계감이 부상한 데 따른 위안 속도조절 가능성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 금통위는 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다만 압도적인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에 따른 환시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연준이 금리를 25bp 확대할 경우 한미 금리차는 사상 최대인 2% 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경계감이 대두될 경우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통위에 앞서 뉴질랜드와 캐나다도 정책회의를 가진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종합하자면 상·하단이 막히는 박스권 장세였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도 달러 약세가 제한된 영향이 컸지만, 중공업 등 수급 저항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시장심리를 포함해 수급이 환율 방향성을 적극 유도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환율도 대외 분위기를 엿보면서 실수급 연동 장세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7월10일(월)

- ⊙ 한국은행: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이슈노트 2023-21) (12:00)

7월11일(화)

- ⊙ 관세청: 7.1~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국무회의 (10:00)

7월12일(수)

- ⊙ 통계청: 2023년 6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9:00)
- ⊙ 기획재정부: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금융감독원: 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2023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3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1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한상의 제주포럼 (17:40)

7월13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10:0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경제상황 평가(2023.7월) (배포시)
- ⊙ 기획재정부: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 ⊙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배포시)

7월14일(금)

- ⊙ 한국은행: 총재 대한상의 제주포럼 (08:30)
- ⊙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한국은행: 2023년 5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1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7월10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6월		3.4%
7월10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5월	1,884.5B	1,895.1B
7월10일	10:30	중국	PPI YY	6월	-5.0%	-4.6%
7월10일	10:30	중국	CPI YY	6월	0.2%	0.2%
7월10일	17:30	유로존	센틱스지수	7월	-18.0	-17.0
7월10일	23:00	미국	고용추이	6월		116.15
7월10일	23: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5월	-0.1%	-0.1%
7월10일	23:00	미국	도매판매 MM	5월		0.2%
7월10-17일		중국	사회용자총량	6월	3,000.00B	1,560.00B
7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6월	11.2%	11.6%
7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6월	2,337.0B	1,360.0B
7월10-17일		중국	FDI (YTD)	6월		0.10%
7월11일	04:00	미국	소비자신용	5월	20.50B	23.01B
7월11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6월		89.40
7월12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YY	6월	4.3%	5.1%
7월12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YY	5월	-0.2%	-5.9%
7월12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7월3일 주간		206.5
7월12일	21:30	미국	CPI MM, SA	6월	0.3%	0.1%
7월13일		중국	수출 YY	6월		-7.5%
7월13일		중국	수입 YY	6월		-4.5%
7월13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5월	0.3%	1.0%
7월1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3일 주간	249k	248k
7월13일	21:30	미국	PPI MM	6월	0.2%	-0.3%
7월14일	03:00	미국	연방예산	6월		-240.00B
7월14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6월	-0.1%	-0.6%
7월14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6월	-0.3%	-1.9%
7월14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7월	65.5	64.4
7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6월		0.1%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10일(월)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브루킹스연구소 허친스재정통화정책센터 주최 대담 참석 (11일 오전 0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UC-샌디에고 2023 경제 라운드테이블 강의 시리즈 화상 강연 (11일 오전 0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코브상공회의소 행사 참석 (11일 오전 1시)

7월11일(화)

-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웨비나 토론 참석 (오후 10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경제클럽 주최 토론회 주재 (12일 오전 0시)

7월12일(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11시)
- ⊙ 영란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오후 3시)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앤아루델 카운티 상공회의소에서 연설 (오후 9시30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전미경제연구소(NBER) 행사 토론 참석 (오후 10시45분)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 (오후 11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방은행 포럼 연설 (13일 오전 2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NBER 행사에서 연설 (13일 오전 5시)

7월13일(목)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7월 서비스업 전망 서베이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뉴욕대 머니마켓티어에서 연설 (14일 오전 7시45분)

7월14일(금)

- ⊙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16일까지)
- ⊙ 휴장국가: 뉴질랜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美 CPI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90% 이상으로 높게 반영하고 있다.

오는 12일 나올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지난 5월 CPI의 전년비 상승률은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인 4.0%를 기록했지만 이는 여전히 연준 목표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CPI 상승률이 전년비 3.1%로 둔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월비 상승률은 0.1%에서 0.3%로 소폭 올랐을 것으로 추정됐다.

⊙ 美·中 갈등과 中 6월 주요 지표

중국이 반도체 핵심 재료 수출 통제에 나섰고, 미국은 중국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재료 외에도 이번 주에는 중국의 6월 물가와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10일 나올 중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비 5.0% 하락해 전달(-4.6%)보다 하락세가 심화됐을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처럼 전년비 0.2% 상승했을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추정됐다.

13일 발표될 6월 수출은 전년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 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전후해 좀 더 확실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다소 수그러든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고객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이 견실한 성장을 촉진하는 조치보다는 현재 경제 역풍을 완화하는 수준의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 뉴질랜드와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회의

오는 12일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50%로 동결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25명 전원이 예상했다.

같은 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5.00%로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로이터 조사에서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24명 중 20명이 25bp 인상을 전망했고, 4명은 동결을 점쳤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따라 향후 정책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트레이더들의 장기적 정책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 美 은행 실적

오는 14일에는 JP모간,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의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최근 투자은행 부문 인력 감축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에서 보듯 딜 메이킹과 거래 수입이 저조해 실적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애널리스트들은 은행들의 대출 여건과 향후 전망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기업들 디폴트 가능성 주목

향후 2년 30억유로의 부채 만기가 예정돼 있는 프랑스 식품 소매업체인 카지노는 7월 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해야 하고, 140억파운드의 부채를 보유한 영국 상하수도 업체인 테임스워터는 신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면 일시적 국유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S&P글로벌레이팅스에 따르면 미국 정크등급 기업들은 2026년까지 거의 1조2000억달러의 부채를 리파이낸싱해야 한다.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아직 이러한 신용 관련 우려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이 폭풍전야일 수 있다.